14-9(통권 108호) 2014.05.08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1/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3.9% 성장
- 이　　슈 : (경제)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
  (산업)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

■ 노후생활

- 테　　마 : 100세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
- 세 심 록 : 느슨한 대가족
- 북 리 뷰 : 리더가 사라진 세계

현대증권 현대경제연구원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 1/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3.9% 성장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부진하였으나 대외거래가 회복세를 보여 전기대비 0.9%, 전년동기대비 3.9% 성장**
  - **소비** : 민간소비는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및 예년보다 높은 겨울철 기온으로 난방수요가 줄어 전기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침
  - **투자**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는 늘었으나 기계류가 부진하여 전기대비 1.3% 감소, 건설투자는 지난 4/4분기(-5.2%) 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주거용 건물건설의 호조 등으로 전기대비 4.8% 증가
  - **대외거래** : 수출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제품 등이 늘어 전기대비 1.7% 증가, 수입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기대비 0.5% 감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3.4%로 하향 조정

- **신흥국의 대외 불안,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등 하방위험들 때문에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3년 11월)에서 0.2%p 하향 조정한 3.4%로 수정 발표**
  - 세계 경제는 통화 완화 정책,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개선, 재정긴축 기조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되겠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
  -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9%에서 2.6%로 낮추고 내년은 3.4%에서 3.5%로 상향 조정
  - 유로지역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7%로 각각 전망했고, 일본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1.2%로 전망
  -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 증가세, EU와 미국 등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3.8%에서 4.0%로 상향 조정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21	5/7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	-	-		
	제조업생산(%)	0.7	-1.6	0.1	1.8	0.7	-4.5	4.4	2.8		
	소비자물가(%)	2.2	1.3	1.4	1.1	1.1	1.1	1.0	1.3	-	
	실업률(%)	3.2	3.1	3.0	2.8	4.0	3.5	4.5	3.9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32.9	45.0	73.5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9	2.85	2.87	2.87	2.88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64.8	1,071.3	1,070.9	1,043.8	1,036.9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48.2	1,937.3	1,952.4	1,996.6	1,981.0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4/21~5/2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1)]
- 대졸, 청년, 장기 취업애로계층에 주목해야

○ 취업애로계층 정의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주 36시간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지표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괄해 체감 고용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금융위기 이후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했는데,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취업애로계층이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취업애로계층이 2010년 사상최대치인 192만 명을 기록했으나, 2013년 158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냈다.

○ 취업애로계층의 특징

취업애로계층의 특징을 크게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애로계층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 취업애로계층 중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내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취업애로계층 중 청년층의 규모가 가장 크고,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의 규모는 2013년 기준 45만 3천 명으로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7%로 가장 높다. 고령층 취업애로계층은 금융위기 직후 급증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다.

셋째, 대졸이상 취업애로계층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대졸 이상 취업애로계층은 57만 7천 명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대졸을 제외한 다른 학력의 취업애로계층은 하락했다.

넷째, 남성 취업애로계층이 여성보다 규모가 크고, 개선세도 여성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 취업애로계층의 감소율이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여성 고용시장 개선이 남성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취업애로계층 중 장기 미취업자가 금융위기 직후 빠르게 증가했고 취업 無경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장기 미취업자는 2013년 39만 1천명으로 금융위기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취업애로계층의 특징과 시사점" 14-15호 (2014. 04. 11.) 에서 발췌 요약.

직후 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섯째, 취업애로계층 중 상용근로자의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애로계층에 속하는 상용근로자 중 실업자는 2013년 기준 20만 명,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 4천 명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전보다 급증했다.

일곱째,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이며, 이어서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건설,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취업애로계층이 많게 나타났다.

○ 시사점

고용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취업애로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졸 취업애로계층의 해소를 위해 대학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학 진학률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완화를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기미취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

□ 이슈 : (산업)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2)]

○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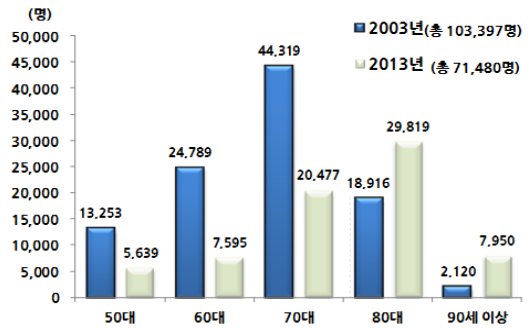
2014년 들어 남북한 정상 모두 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있고, 우리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 강조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여 유명무실해졌다.

○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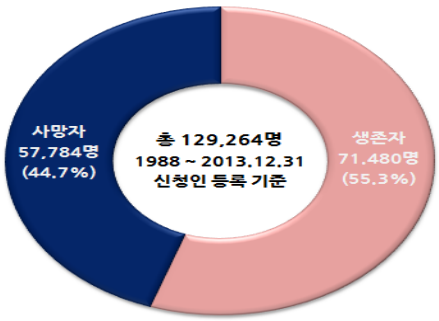
(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8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기대수명은 81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기대수명 초과자는 2003년 21,036명(전체 20.3%)에서 2013년 37,769명(52.8%)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다달았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3년 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264명으로, 이중 44.7%인 5만 7,784명은 사망했고, 55.3%인 7만 1,480명만 생존해있다. 2003년 이후 사망률과 상봉률 격차 증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600명에 불과해, 연간 2,2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3년까지 6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2%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14.1%p나 증가했다.

<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 추이 >



< 이산가족 등록자 현황 >



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제』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 14-09호 (2014. 02. 20) 에서 발췌 요약.

(고령자의 생존 기간이 10년 남짓 불과) 현재의 이산가족은 평균기대여명(50~60대 24.4년, 70~80대 9.6년)으로 보아 20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현재의 모든 생존자들이 향후 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6,0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첫째, 80대 이상의 평균기대수명을 초과한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긴급 특별상봉을 추진하는 한편, 상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0대 이상의 이산가족에 한해 전원 상봉을 전제로 대규모 특별상봉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50~70대 이산가족의 경우는 매월 정기 상봉을 실시하며, 횟수는 점차 늘려가야 한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 대소사(혼인, 사망 등)를 비롯해 남북한 각각의 국가명절을 전후한 수시 상봉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활성화하여,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면상봉 이외에도 생사 확인,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이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대면상봉보다 용이한 화상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으로 다양한 상봉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 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산가족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서신 교환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대면상봉 없이도 자유롭게 이산가족 간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 화상상봉 중단 이전 남북에 설치된 20여개의 화상상봉장을 재개하는 한편, 장비·통신망 등을 점검·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영상편지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2072-6221, sjhong@hri.co.kr)

□ 테마 : 100세 시대 산업구조의 변화

○ **요약**

2013년 고령사회를 거친 우리나라는 2021년에는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본격적인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60~80세 사이의 비교적 건강한 노년층으로 구성되는 활동노년층(Active Seniors)의 증가가 예상된다. 활동노년층의 증가는 경제활동과 자산축적을 보다 확대시킴으로써 노년의 장기화에 대비한 연금저축의 확대와 결부된 금융산업을 비롯하여 요양산업, 화장품산업 등과 같은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산업은 노후생활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위험대비 목표수익률을 상향 조정시키려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위험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전문가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함께 노후의 경제적 생활을 전문적으로 설계해주는 개인 재무설계사(FP) 직종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같은 활동노년층의 증가는 노화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키는 작용을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화장품, 식품 등의 항노화산업(Anti-aging Industry)의 발전 계기로도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2년 11.9조원에서 출발하여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헬스케어산업은 기존의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던 오프라인식 치료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원격지간의 의료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가 IT기술과의 접목으로 다양한 의료 SW/DB등의 컨텐츠 제공기관, 영상진단기기 업체, 통신서비스 업체, 정부가 인증한 전문인증기관 등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 U-헬스(Ubiquitous Health)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발전 이외에도 문화주류층으로서의 베이비 부머세대의 감각을 반영한 다목적 여가산업, 정신건강 케어산업, 사회봉사 지원산업 등과 함께 Senior Shift를 초래하며 각종 스마트기기에 대한 고령층 수요확대추세를 반영한 스마트 실버산업도 차세데 성장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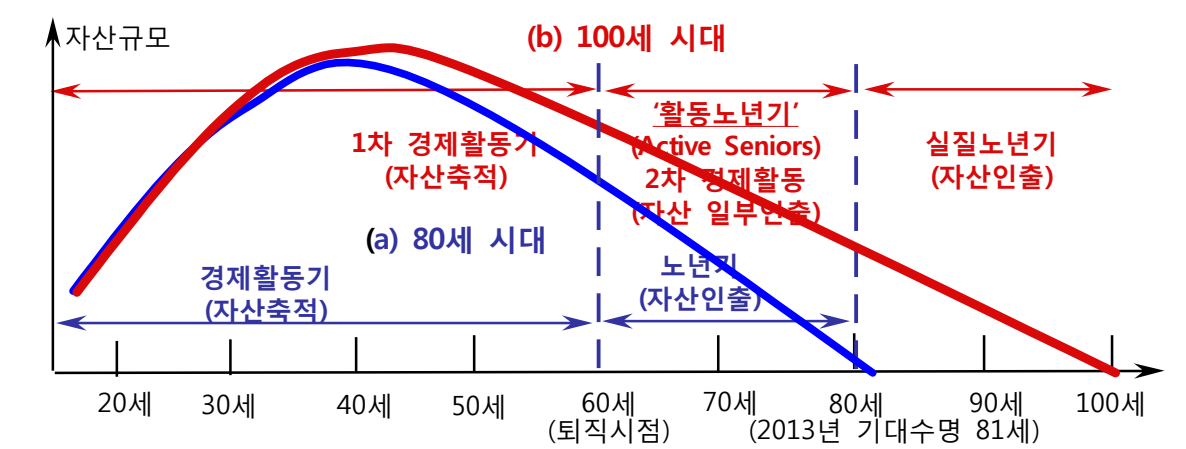
□ 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

○ 100세 시대의 도래와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예상

- **활동노년층(Active Seniors)의 등장으로 경제활동 및 자산축적 기간이 연장될 전망**
  ·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중이 2060년 40%까지 확대되는 등 본격적인 100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기존의 80세 시대에서는 없었던 60~80세까지의 활동노년기(Active Seniors)의 경제활동 및 자산축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개인금융(연금), 화장품, 요양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부각될 듯**
  · 고령화로 개인의 자산축적 요구가 커지며 연금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업 등의 금융산업 규모가 가장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연평균 19% 성장)
  · 생산가능 활동노년층의 등장에 따른 화장품 등의 항노화(Anti-aging)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며 요양, 의약품, (건강)식품 등의 성장도 돋보일 것으로 예상됨

< 100세 시대의 라이프 싸이클 >



자료: 강남대 실버산업연구소(2013),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3)

< 한국 고령친화산업의 세부 산업별 시장규모 전망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CAGR(%)
	시장규모(억원)	비중(%)	시장규모(억원)	비중(%)	시장규모(억원)	비중(%)	('10~'20)
요양	**25,675**	**7.7**	**62,234**	**9.2**	**125,188**	**10.0**	**17.2**
의약품	30,486	9.2	57,464	8.5	108,315	8.7	13.5
의료기기	10,903	3.3	13,516	2.0	16,975	1.4	4.5
화장품	**5,109**	**1.5**	**11,541**	**1.7**	**26,070**	**2.1**	**17.7**
식품	48,990	14.7	90,128	13.3	165,810	13.3	13.0
여가	76,088	22.9	110,268	16.2	161,917	13.0	7.8
금융	**105,663**	**31.8**	**301,711**	**44.4**	**610,404**	**48.8**	**19.2**
주거	9,616	2.9	9,073	1.3	6,824	0.5	-3.4
용품	19,711	5.9	23,347	3.4	28,322	2.3	3.7
전체	332,241	100.0	679,281	100.0	1,249,825	100.0	14.2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 금융산업은 사적연금시장 확대로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 사적연금시장은 장수위험(Longevity Risk)의 증가에 따라 DC(확정기여)형 위주로 개편되고 개인퇴직연금(IRP)의 시장규모도 확대될 전망

· 100세 시대 잔존수명기간의 확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춘 공적연금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행복한 노후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적연금의 비중을 증가시킴

· 미국의 사적연금 자산투자액은 DB형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4.9% 증가에 그쳤으나 DC형과 IRA(개인연금계정)은 동기간 각각 6.7%(1.7조 달러 → 5.1조 달러), 8.7%(1.3조 달러 → 5.4조 달러) 증가를 기록하였음

· 2005년 163억원에 불과하였던 국내 사적연금 적립액은 2013년 9월말 현재 72조 284억원을 기록하여 연평균 186%의 폭발적 성장을 기록함

· 국내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 DB형은 최근 8개년간 평균 210% 증가하였고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퇴직연금(IRP)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66%와 152%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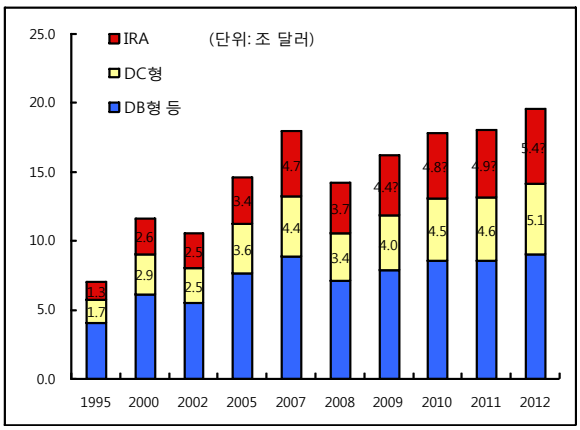
· 그러나 2010~2013년까지의 최근 3개년 증가율만을 기준으로는 DC형이 42.6%를 기록하여 34.1%를 기록한 DB형을 추월한 바 투자자들의 장기간 위험대비 목표수익률의 상향추세를 입증함

- 사적연금시장의 확대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확대와 함께 전문적 노후자산관리를 컨설팅해주는 재무설계사(FP) 직종의 확대로 귀결될 전망

· 위험대비 목표수익률 확대추세는 주식 등 위험자산의 편입확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전문가의 수요확대가 이루어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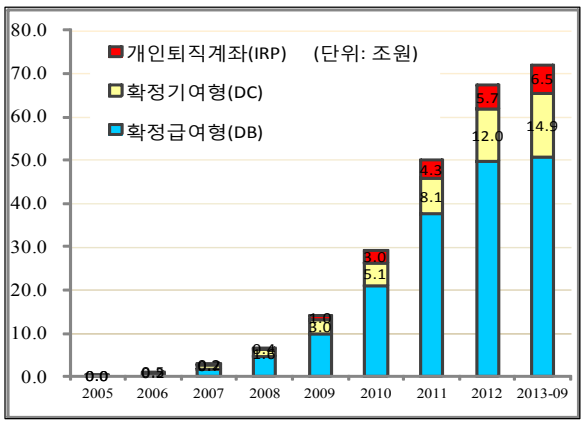
· 또한 베이비부머들의 노령화와 함께 노후생활을 여유롭고 행복하게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연금, 보험, 투자설계 등의 전문적 개인자산운용 관리를 담당해주는 재무설계사(FP: Financial Planner) 직종에 대한 수요도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사적연금자산 적립추이 >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2013 Fact Book"

< 한국의 사적연금자산 적립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퇴직연금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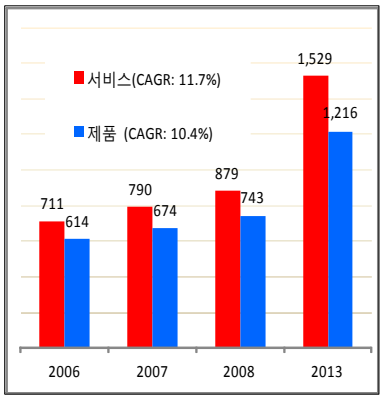
○ 항노화(Anti-aging)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듯

- **항노화산업은 대표적 고령친화산업으로 노화를 완화시키거나 늦추는 의료, 제품 및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되며 전세계적으로 매년 11%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Boston Consulting Group(2009)에 의하면 세계 항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8년 1,622억 달러에서 2013년 2,745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 이 중 서비스시장규모는 2008년 879억 달러로 제품시장규모(743억 달러)보다 컸으며 연평균 성장률 또한 11.7%로 제품시장(10.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항노화산업의 2012년 시장규모(SERI 추정, 2013)는 11.9조 원으로 예측되었으며 매년 10.1%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국내 항노화산업은 화장품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의료부문 18%와 서비스부문 7%로 구성됨
  - · 이때 의료산업은 치료서비스를 넘어 건강인 대상의 미용관리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화장품산업은 미용서비스를 넘어 準치료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등 상호간 영역이 교차되며 항노화산업이 융복합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광의의 항노화산업은 금융, 여가서비스까지 포함한 고령친화산업으로 정의됨**
  - · 항노화산업은 노화예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의료서비스에서 벗어나 항노화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게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금융산업 및 요양, 레져, 서비스업까지 포함된 고령친화산업으로까지 폭넓게 정의될 수 있음

<세계 항노화산업의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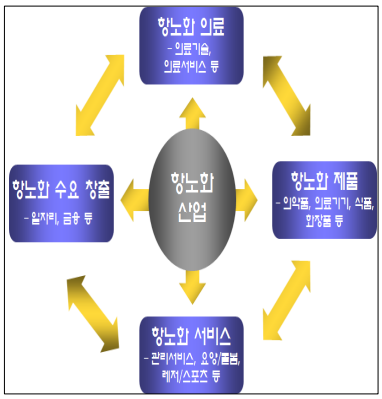


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2009), "Anti-aging Products and Services." (단위: 억 달러)

<최근 항노화산업의 융복합화 추세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2013),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안티에이징」

<광의의 항노화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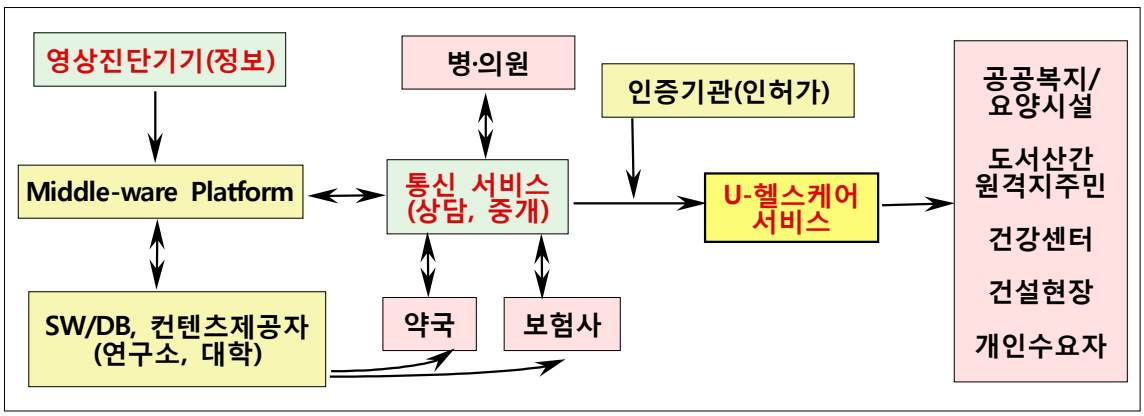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항노화산업 활성화협의체 운영방안 회의자료」

○ U-Health, 다목적 여가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세 돋보일 듯

-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헬스케어산업은 IT기술과 의료서비스가 결합한 U-헬스(Ubiquitous Health) 산업의 성장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 기존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의료서비스는 영상진단 의료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되면서 원격지 진료가 가능한 U-헬스 산업으로 발전될 전망
  - · 이는 연구소, 대학 등의 SW·컨텐츠 제공기관, 영상진단기기 제공업체, 병·의원, 통신서비스 기업 등이 서로 협력하여 헬스케어에 필요한 인증기관의 허가를 거쳐 도서산간 원격지주민과 의료소외계층 등의 개별수요자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의미
  - · POCT(Point of Care Testing: 현장진단), 분자진단기와 같은 체외진단기기 등의 개인용 의료기기산업과 운동기록 SW평가, 영양분석 등의 시장성장세가 돋보일 듯

- **U-헬스 이외에 다목적 여가산업, 정신건강 케어산업, 사회봉사 지원산업, 스마트 실버산업 등의 고령친화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부각할 듯**
  - · 현재의 중장년층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년층으로 이동할 때 문화주류층으로서 문화컨텐츠가 다양화되며 문화예술관람, 여행, 스포츠 등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 여가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 건강 측면에서는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정신건강 케어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
  - · 은퇴자의 교육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년층 위주로 적극적 형태의 사회참여를 행하는 사회봉사 지원산업도 크게 번창할 것으로 예상됨
  - · 'Senior Shift' 현상으로 대변되는 IT기기에 대한 고령층 위주 수요에 입각한 스마트폰, 스마트 디스플레이와 함께 고령층에게 유용한 무인자동장치를 갖춘 스마트 자동차 등과 같은 스마트 실버산업도 새로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부각될 전망

< 한국에서의 100세 시대 U-헬스산업 생태계 전망 >



자료: 기획재정부(2011),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발표자료집」에서 일부 인용.

□ 시사점

○ 활동 노년층(Active Seniors)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예상됨

- 100세 시대에 접어들며 60~80세까지의 건강한 활동노년층이 생성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금융산업을 필두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이 돋보일 전망

· 고령화의 진전은 병약한 노년층 대신 상대적으로 건강한 활동노년층의 양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의 개편과 함께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금융산업이 확대되고 화장품, 요양, 식품 등의 고령친화산업의 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활동노년층의 대두는 노화를 완화시키는 항노화산업의 발전 계기로 작용할 전망

· 고령친화산업 중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노화예방 및 지연에 관계된 다양한 항노화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 U-헬스, 다목적 여가산업과 같은 고령친화산업도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 IT기술과 의료서비스가 결합된 U-헬스(Ubiquitous Health) 산업은 의료수요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정부주도하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됨

·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가 반영된 다목적 고령친화 여가문화사업과 함께 정신건강, 사회봉사, 스마트 기기 등과 결부된 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됨

강남대학교 김병준 교수 (031-280-3222, bobbyjoe@kangnam.ac.kr)

□ 세심록(洗心錄)

○ 느슨한 대가족

작년 노인인구가 12.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이미 10년 이상이 되어 우리나라도 이젠 부인할 수 없는 '고령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노인인구가 25%로 세계최고 수준이며, 이에 걸맞게 오래전부터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노인'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무라타 히로유키의 저서 '그레이마켓이 온다'에서는 노인 시장(그레이마켓)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레이마켓의 주인공들이 고자산 '빈곤층'이라고 하지만, 3불(불안, 불만, 불편)이 해결될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기도 한다. 그럼에도 매스 마케팅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마이크로 시장이다. 하지만 노인을 중심으로 한 '느슨한 대가족'이 많아지면서 그레이마켓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무라타 히로유키는 먼저 지방을 중심으로 부모-자녀-손주 3대가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고 있다. 산업공동화, 경기침체 등에 의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저하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다시 대가족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차로 30분내 거리에서 따로 거주하는 변형된 대가족 형태인 느슨한 대가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세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부모로부터 육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세대는 심리적 위안과 위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두 세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만남 횟수는 줄지만 만남의 밀도는 오히려 커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느슨한 대가족'은 노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인의 개인적 욕구뿐만 아니라 '가족'의 욕구까지 그레이마켓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느슨한 대가족'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에서 주인공은 단연코 노인이었다. 하지만 가깝지만 언제든지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느슨한 대가족'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리고 오랫동안 '느슨한 대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인공의 역할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인생이란 겸손을 배우는 긴 여정이다.

- 제임스 M. 배리(1860-1937) : <피터팬>을 쓴 영국의 소설가

□ 북 리뷰 : 리더가 사라진 세계[3)]

이언 브레머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위기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회장으로, 월스트리트를 비롯해 세계 금융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국제정치리크스 인덱스(DESIX)를 도이치 은행과 합작으로 개발한 바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J커브' 등이 있음.

○ 주요 내용

- 글로벌 리더가 사라진 세계, G제로

·국가 부채에 발목 잡힌 미국,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유럽과 일본, 준비되지 않은 신흥국가들, 한목소리로 협력하지 못하는 국제기구들 모두 리더의 역할을 방기

- G제로가 불러올 새로운 분쟁의 씨앗들

·(현실 전쟁터와 사이버 전쟁터)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충돌이 격화되는 한편, 사이버 전쟁의 위험성도 크게 증가할 전망

·(무역과 비즈니스, 글로벌 시장에서의 충돌) 선진국, 신흥국,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무역장벽, 외환시장 개입,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

·(달러의 독점에 대한 도전) 달러는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공재 역할을 해왔으나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국의 채무위기로 신뢰도가 하락

·(첨단기술, 인터넷, 정보를 둘러싼 갈등) 새로운 국제표준을 둘러싸고 선진국에 대한 신흥국들의 도전이 강화

·(가장 큰 비극,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 기후 문제, 식량 전쟁, 물 부족 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G제로 시대의 위기와 기회, 승자와 패자

·승자들: 중심축 국가(브라질, 터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캐나다)와 비호받는 말썽 국가(북한, 이란, 미얀마)

·패자들: 심판(NATO, IMF, 세계은행, 국제인권감시기구, 국경없는 의사회)과 노출국가(일본, 대만, 이스라엘)

·승자이자 패자: 갈림길에 선 국가들(러시아, 미국, 중국)

○ 세계 경제 질서를 변화시킬 5가지 시나리오

·G2(미-중 협력,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조화(미-중 협력, 다른 나라들의 힘이 강한 상태), 냉전 2.0(미-중 대립,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분열(미-중 대립, 다른 나라들의 힘이 약한 상태)

·시나리오 X(리더십의 위축, 권력의 분열로 통제가 불가능의 최악의 시나리오)

---

3) 이언 브레머 지음, 박세연 옮김, "리더가 사라진 세계", 다산북스, 2014.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人)
· **2명 가입시** 90만원(1人)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人)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